

예술+α : 감각의 재발견



Learning
Improvement
Network
Know-how

예술+α : 감각의 재발견

2015. 12. 1. - 12. 15. 매주 화, 오후 7시 - 9시
SJA HALL

예술+α는 우리와 같은 듯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타 영역의 전문가를 만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예술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영역 사이에서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공유하는 예술경영아카데미 LINK의 특강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는 ‘감각’을 주제로 합니다. 감각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잘 몰랐던 감각의 특징들은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고, 감각이 예술 창작 및 감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또한, 현대예술에서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고 있는 양상을 살펴봅니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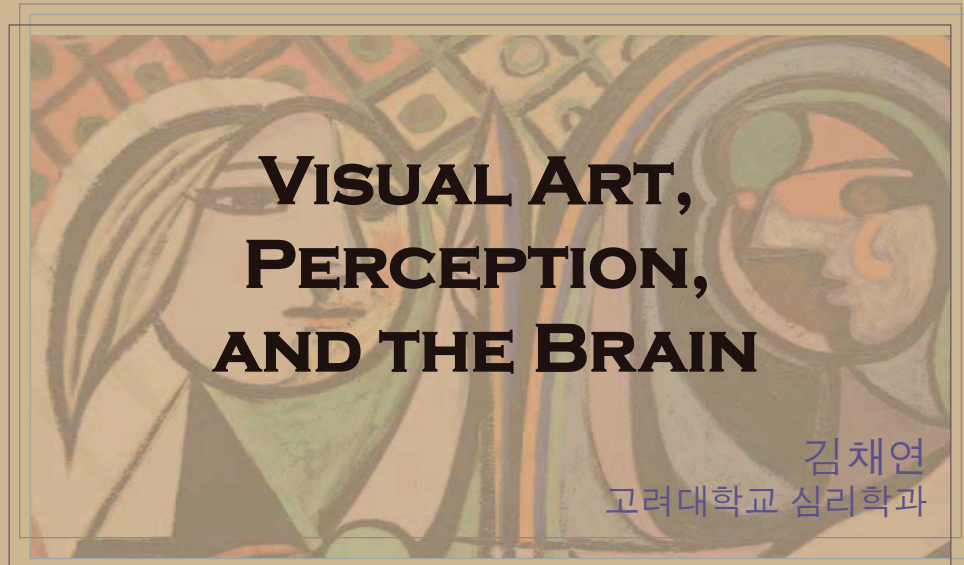
1회차	<p style="text-align: center;">신경과학으로 설명하는 예술의 아름다움, 신경미학</p> <p style="text-align: center;">우리는 무엇을 ‘아름답다’고 느낄까? 감각지각으로 예술을 새롭게 이해해본다.</p>	
12. 1.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 경험과 이의 신경적 기반 · 위대한 예술 작품 속에서 활용되고 있는 시각 정보처리 특성 · 시각적 경험, 미적 경험, 그리고 뇌의 반응 · 신경미학 연구 동향 	<p>김채연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행동인지신경과학 전공 교수</p>
2회차	<p style="text-align: center;">냄새를 ‘보고’ 색을 ‘듣는’ 공감각, 뇌의 오류일까 축복일까?</p> <p style="text-align: center;">전 세계 약 2%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감각 능력을 신경과학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이것이 예술적 상상력, 창의력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해본다.</p>	
12. 8.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각의 정의와 종류 · 신경과학 입장에서 바라본 공감각 · 공감각,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 	<p>최강 서울명병원 신경정신과 과장</p>
3회차	<p style="text-align: center;">미술은 여전히 ‘보는’ 것일까? 오감으로 보는 현대미술</p> <p style="text-align: center;">다양한 감각을 활용하려는 현대 예술의 흐름을 미술 분야를 통해 살펴본다.</p>	
12. 15.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 중심적 미술에서 벗어난 현대미술의 새로운 작업 사례들 “미술을 바라보고, 들어보고, 만져보고, 맡아보고, 맛보다” · 음악과 소음, 냄새와 음식은 어떻게 미술에 편입되어 왔나 · 예술과 관객, 감각으로 소통하기 	<p>이지은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p>

예술경영아카데미 LINK
예술+ α : 감각의 재발견

이 책자는 2015년 12월 1일 - 12월 15일에 진행된 <예술+ α : 감각의 재발견>의 교육 자료입니다.

예술경영아카데미 LINK <예술+ α : 감각의 재발견> 1회차
신경과학으로 설명하는 예술의 아름다움, 신경미학

김채연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행동인지신경과학 전공 교수



뇌와 예술

1. 예술가의 뇌

뇌손상 예술가의 사례 연구 - 오랜 역사

뇌를 다치면 작품이 망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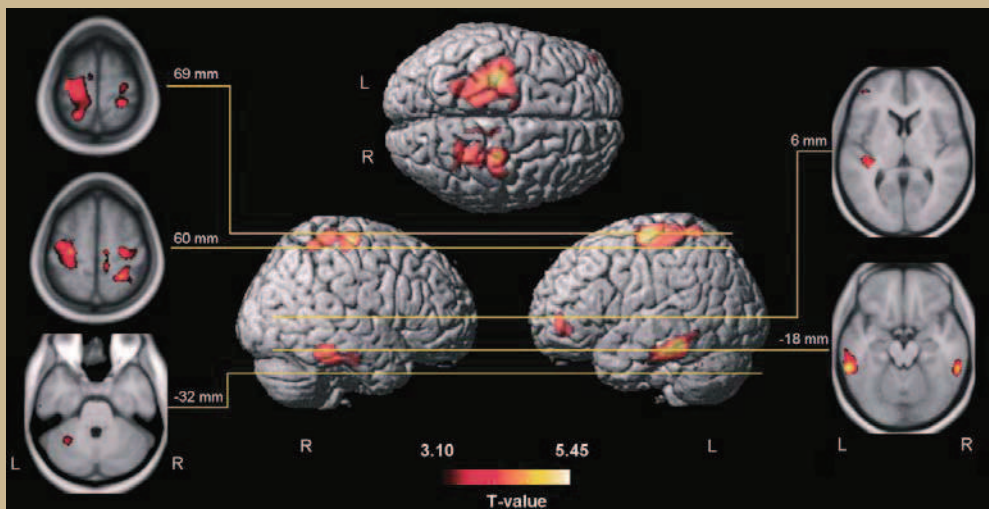


LORING HUGHES,
PORTRAIT
(BEFORE BRAIN INJURY)



LORING HUGHES,
PORTRAIT
(AFTER BRAIN INJURY)

예술가의 뇌, 특별한 뇌?



GASER & SCHLAUG (2003) *J NEUROSCI.*

뇌와 예술

1. 예술가의 뇌

뇌손상 예술가의 사례 연구 - 오랜 역사

2. 예술가의 뇌로 바라본 세상

MARGARET LIVINGSTON, PATRICK CAVANAUGH

예술가의 뇌로 바라본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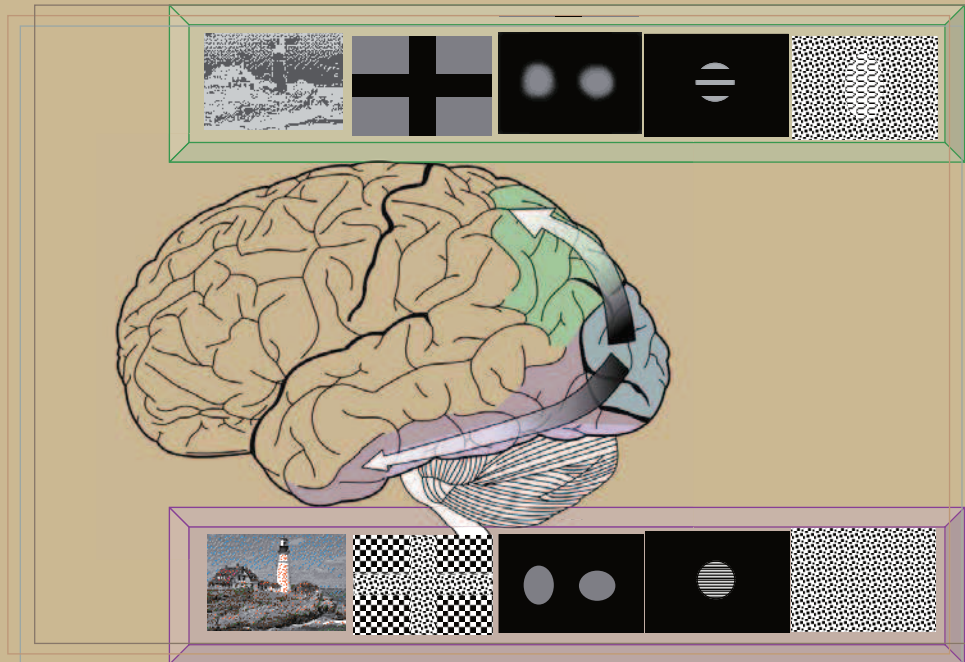
MARGARET LIVINGSTON "VISION & ART: THE BIOLOGY OF SEEING"



MATISSE (1905), "WOMAN WITH A HAT"

예술가의 뇌로 바라본 세상

SEPARATE PATHWAYS FOR COLOR AND LUMINANCE CONTR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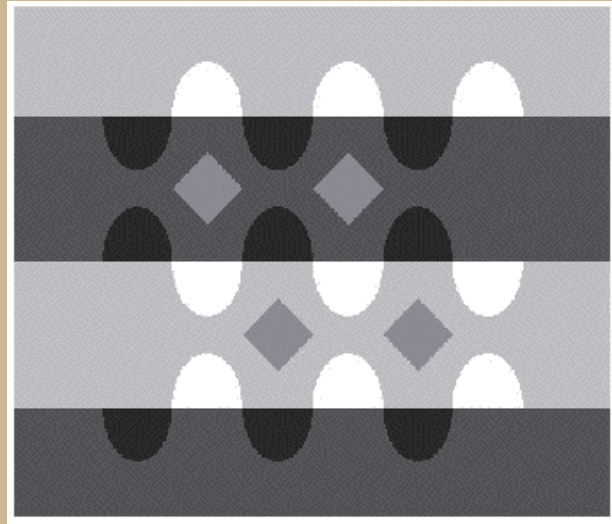
예술가의 뇌로 바라본 세상

MARGARET LIVINGSTON "VISION & ART: THE BIOLOGY OF SEE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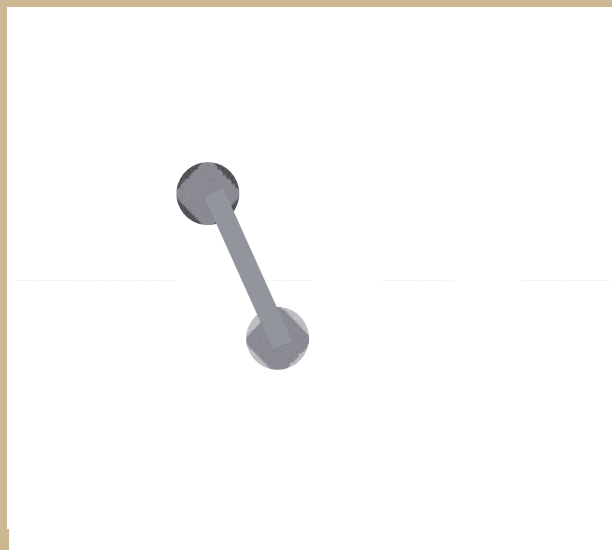
REMBRANDT (1632) "MEDITATING PHILOSOPHER"

예술가의 뇌로 바라본 세상



예술가의 뇌로 바라본 세상

밝기보단 대비!



예술가는 뇌과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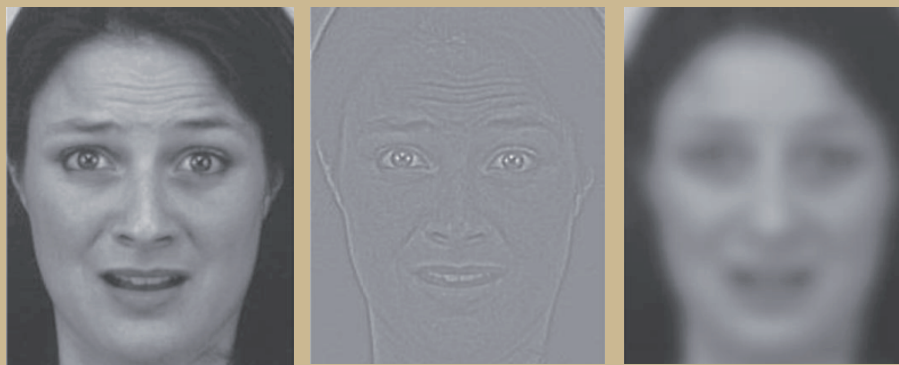
PATRICK CAVANAUGH "ARTISTS AS NEUROSCIENTISTS"



RENOIR (1875), OIL ON CANVAS

예술가는 뇌과학자

PATRICK CAVANAUGH "ARTISTS AS NEUROSCIENTISTS"



VUILLEUMIER ET AL. (2003) *NATURE NEUROSCI.*

뇌와 예술

1. 예술가의 뇌

뇌손상 예술가의 사례 연구 - 오랜 역사

2. 예술가의 뇌로 바라본 세상

MARGARET LIVINGSTON, PATRICK CAVANAUGH

3. 관객이 예술작품을 만날 때

SEMIR ZEK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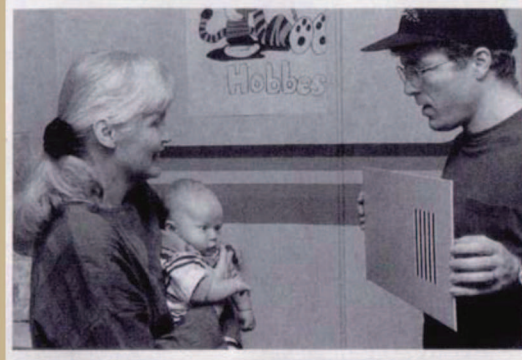
익숙함 vs. 새로움

Visual Experience in Infants: Decreased Attention to Familiar Patterns Relative to Novel Ones

Abstract. A complex visual pattern presented for ten successive 1-minute exposure periods was fixated progressively less than comparable novel stimuli by infants 2 to 6 months old. This indicates the occurrence of recognition and habituation of visual responsiveness to specific patterns, and suggests that familiarization with the environment begins through visual exploration before more active exploration is possible.

익숙함 vs. 새로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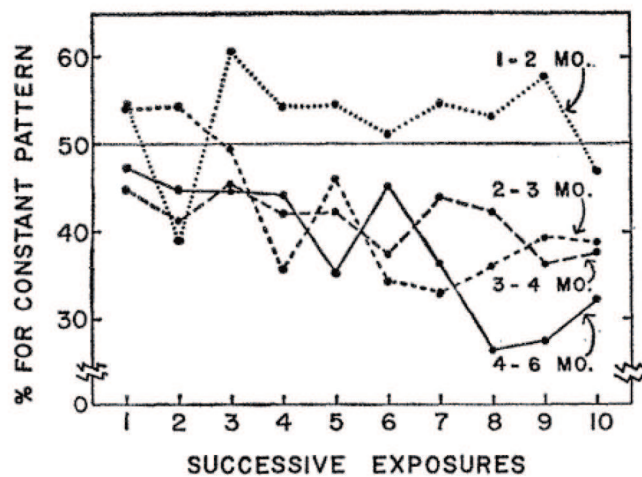
Visual Experience in Infants: Decreased Attention to Familiar Patterns Relative to Novel Ones



FANTZ (1964) *Sc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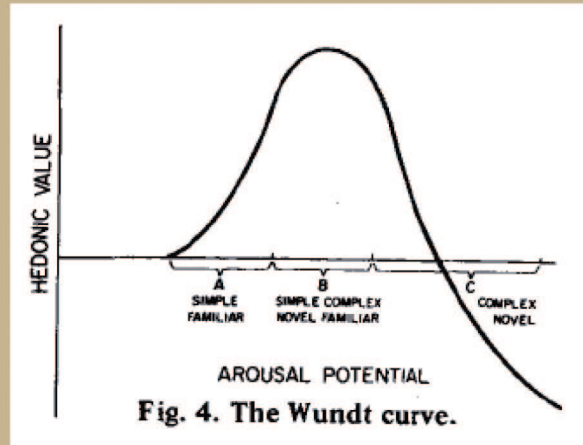
익숙함 vs. 새로움

Visual Experience in Infants: Decreased Attention to Familiar Patterns Relative to Novel O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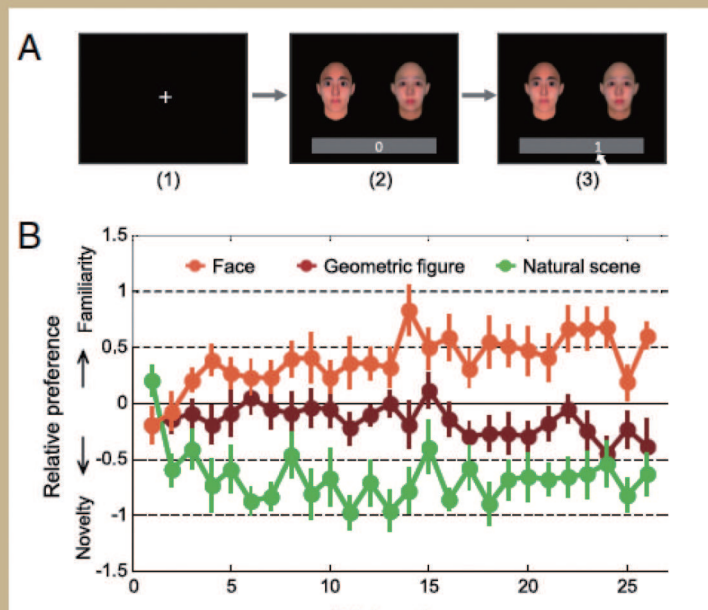
FANTZ (1964) *Science*

익숙함 vs. 새로움 그리고 쾌감



BERLYNE (1970) *Perception & Psychophysics*

익숙함 vs. 새로움 그리고 대상



PARK, SHIMOJO, & SHIMOJO (2010) *PNAS*

익숙함의 파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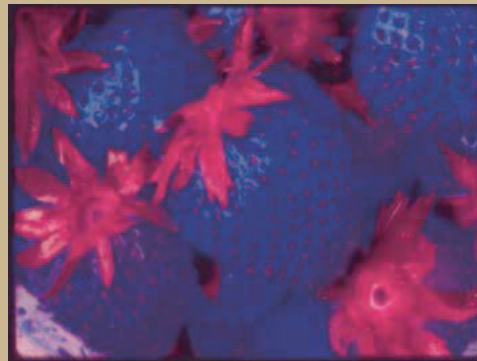


DERAIN (1906) "CHARING CROSS BRIDGE"

익숙함의 파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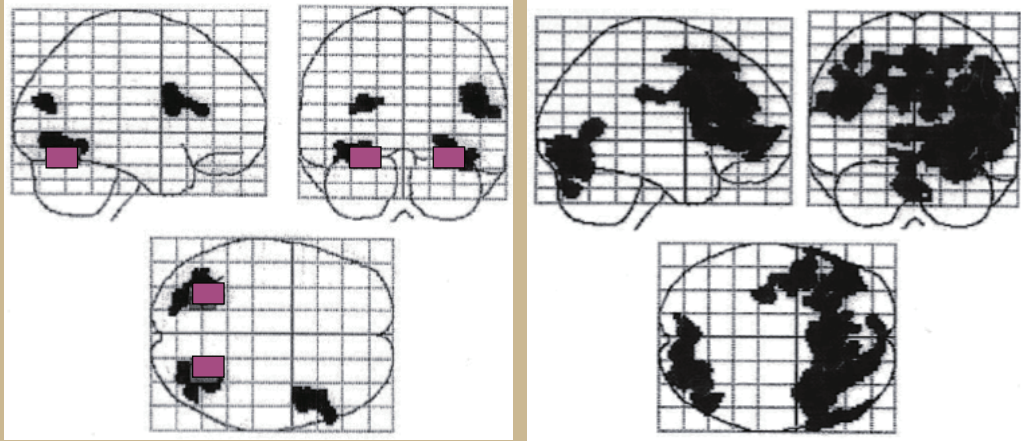
USUALLY COLORED



UNUSUALLY COLORED

ZEKI & MARINI (1998) *Brain*

익숙함의 파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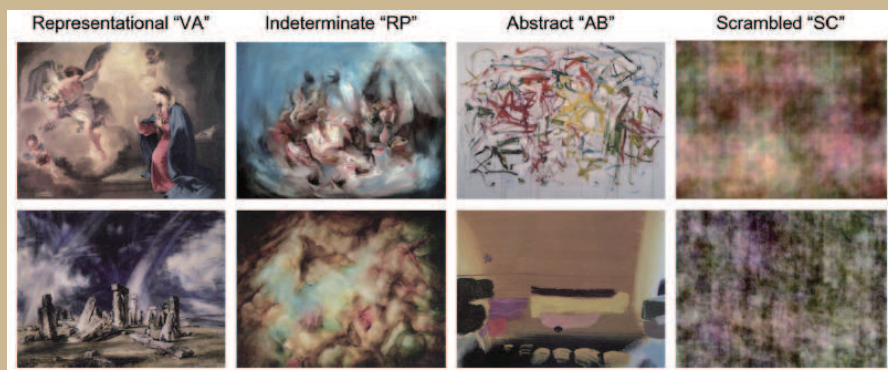


UNUSUALLY COLORED -
ACHROMATIC

UNUSUALLY COLORED
- USUALLY COLO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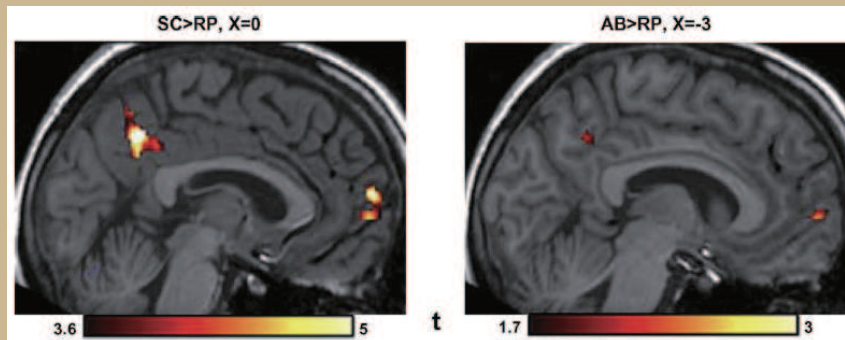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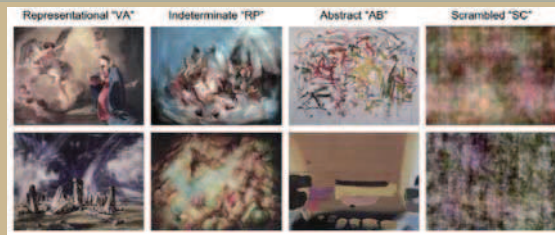
ZEKI & MARINI (1998) *Brain*

INDETERMINACY EFFECT IN ART



FAIRHALL & ISHAI (2007) *CONSCIOUSNESS AND COGNITION*

INDETERMINACY EFFECT IN ART



FAIRHALL & ISHAI (2007) *CONSCIOUSNESS AND COGNITION*

익숙함의 파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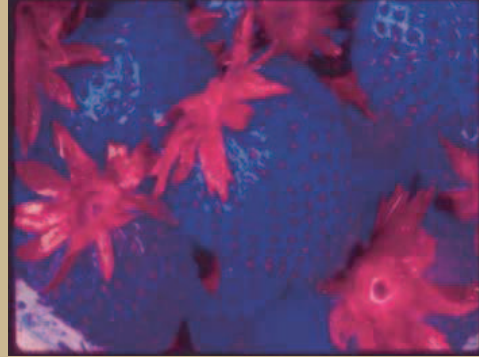


DERAIN (1906) "CHARING CROSS BRIDGE"

익숙함의 파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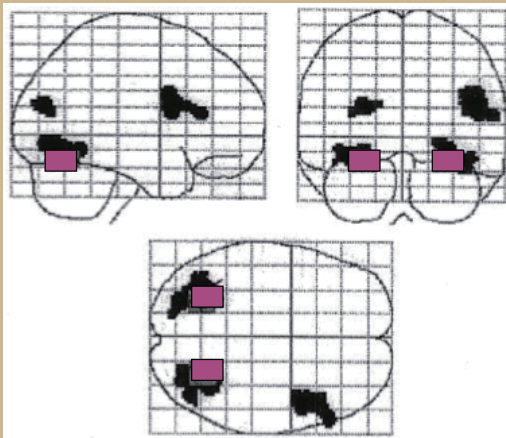
USUALLY COLO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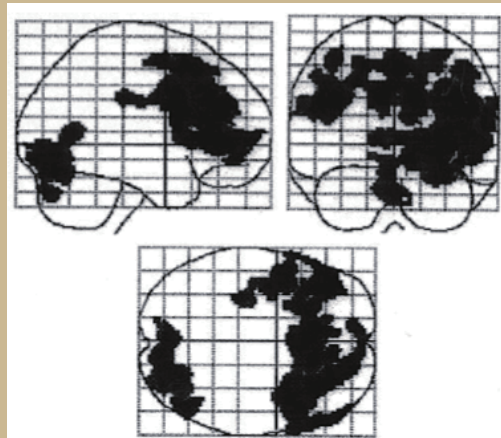
UNUSUALLY COLORED

ZEKI & MARINI (1998) *Brain*

익숙함의 파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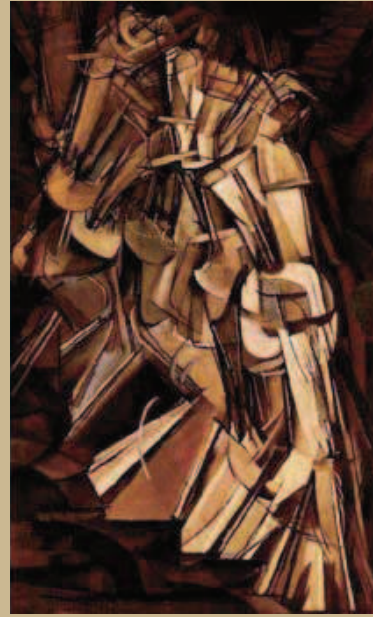
UNUSUALLY COLORED -
ACHROMATIC



UNUSUALLY COLORED
- USUALLY COLORED

ZEKI & MARINI (1998) *Brain*

평면의 캔바스를 넘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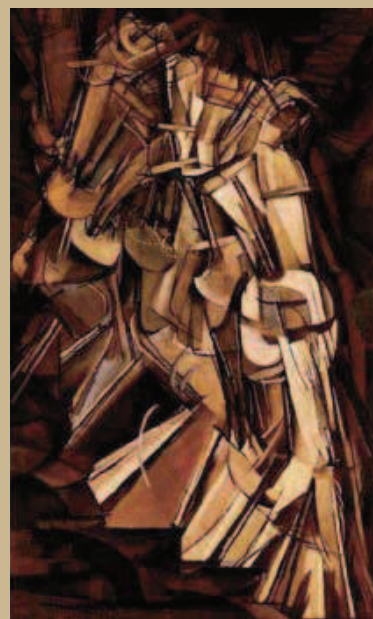


MARCEL DUCHAMP (1917)
"NUDE DESCENDING A STAIRCASE"

평면의 캔바스를 넘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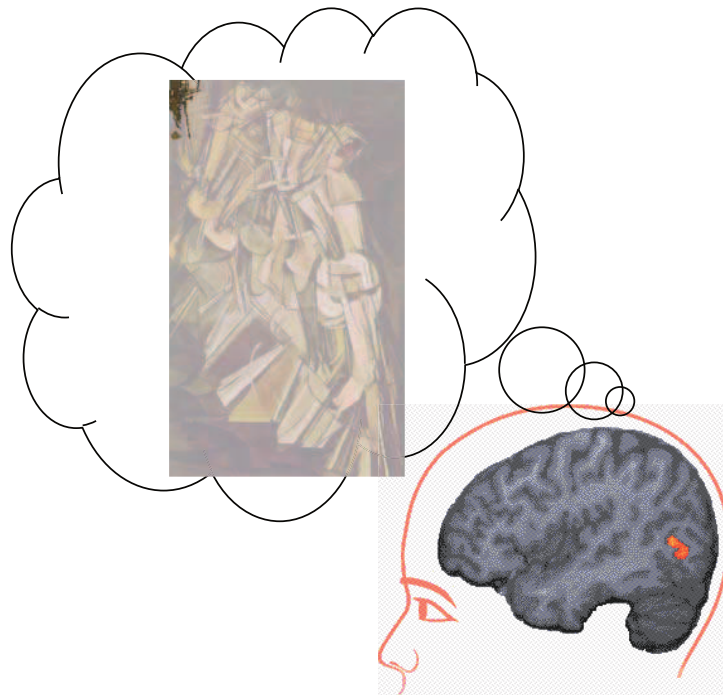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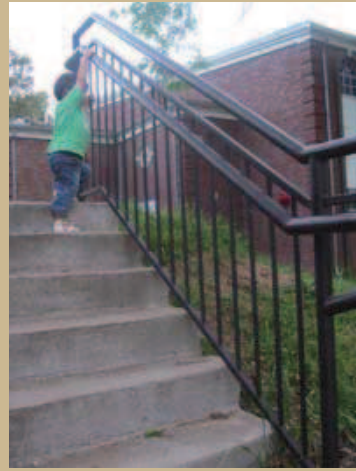


ELIOT ELIOTSON (1952)
"DUCHAMP DESCENDING A STAIRC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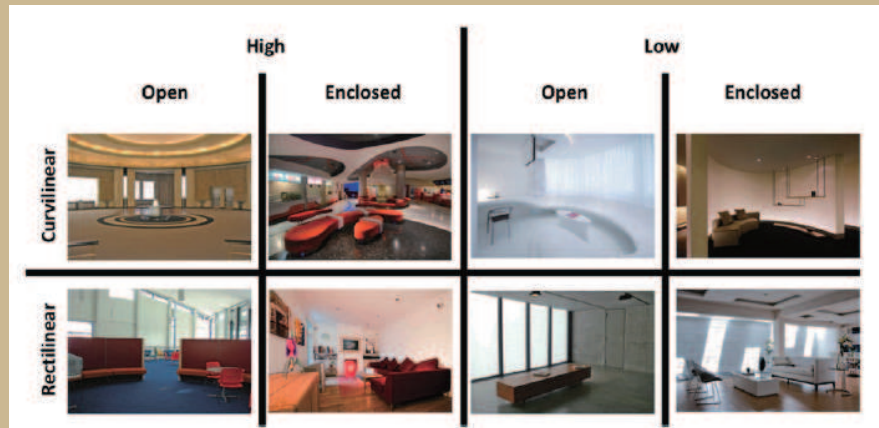


MARCEL DUCHAMP (1917)
"NUDE DESCENDING A STAIRCASE"

움직임의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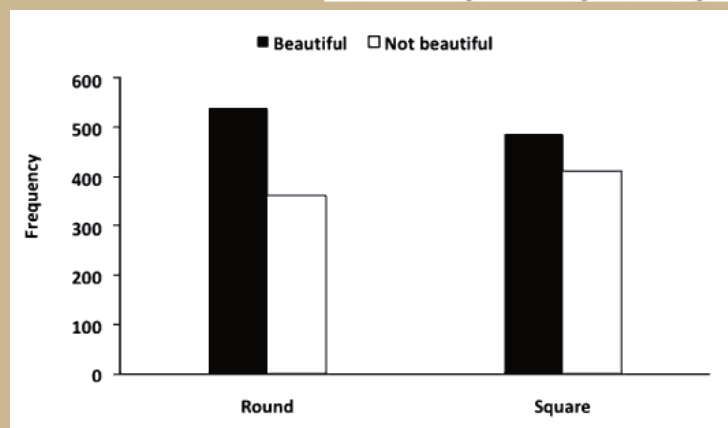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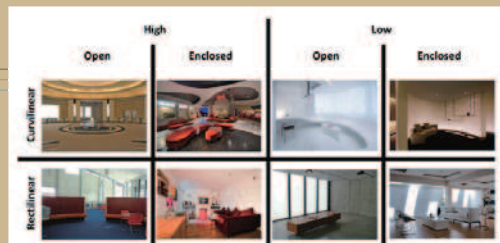


곡선과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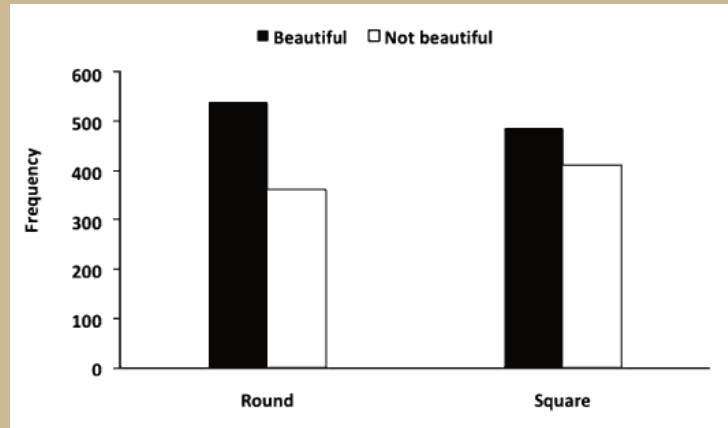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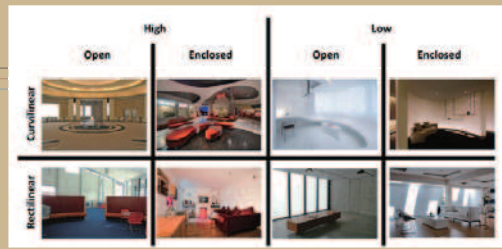
VARTANIAN ET AL. (2013) PNAS

곡선과 공간



VARTANIAN ET AL. (2013) PNAS

곡선과 공간



VARTANIAN ET AL. (2013) PNAS

곡선과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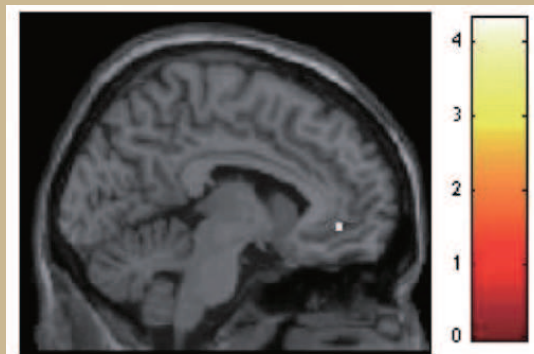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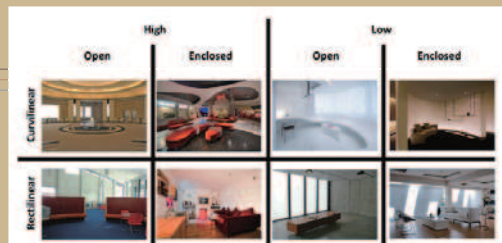


Fig. 5. Curvilinear spaces activate the anterior cingulate cortex in beauty judgments. SPM rendered into standard stereotactic space and superimposed on to sagittal MRI in standard space. Bar represents magnitude of t-score.

VARTANIAN ET AL. (2013) PNAS

뇌와 예술

1. 예술가의 뇌

뇌손상 예술가의 사례 연구 - 오랜 역사

2. 예술가의 뇌로 바라본 세상

MARGARET LIVINGSTON, PATRICK CAVANAUG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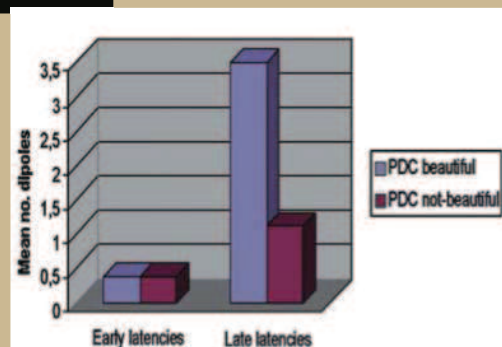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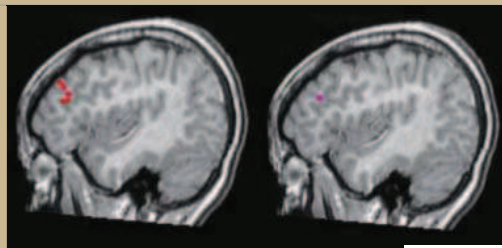
3. 관객이 예술작품을 만날 때

SEMIR ZEK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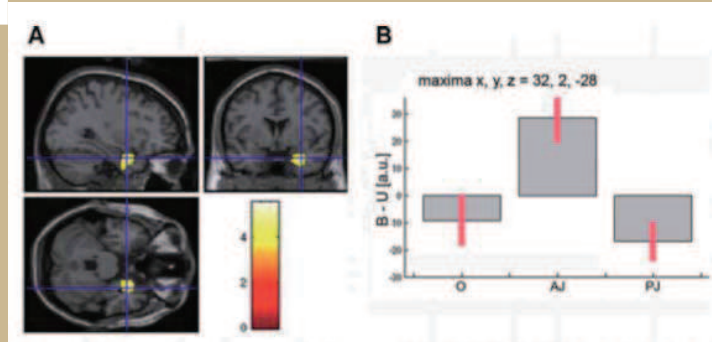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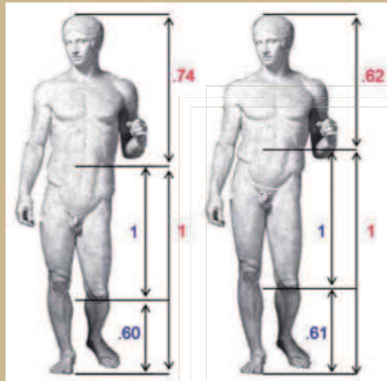
4. 관객이 아름다움을 판단할 때

2000'S "NEUROAESTHETICS" RESEARCH

“아름답다”는 판단



“아름답다”는 판단



DI DIO, MACALUSO, & RIZZOLATTI (2007) *PLOS ONE*

뇌와 예술

1. 예술가의 뇌

뇌손상 예술가의 사례 연구 - 오랜 역사

2. 예술가의 뇌로 바라본 세상

MARGARET LIVINGSTON, PATRICK CAVANAUGH

3. 관객이 예술작품을 만날 때

SEMIR ZEKI

4. 관객이 아름다움을 판단할 때

2000'S "NEUROAESTHETICS" RESEARCH

5. 관객의 체화

RIZZOLATTI, VITTORIO GALLE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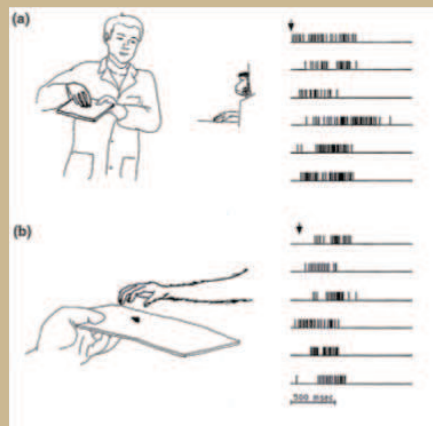
관객의 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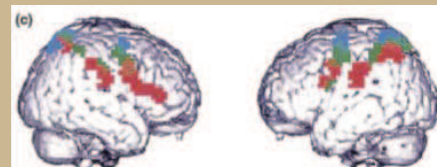
MICHELANGELO (1520-1523)
"SLAVE CALLED ATLAS"

관객의 체화

MIRROR NEURON SYSTEM



DI PELLEGRINO ET AL. (1992)
EXP. BRAIN RES.



BUCCINO ET AL. (2001)
EUR. J. NEUROSCI

관객의 체화



FONTANA (1960) "WAITING"

만지고 싶은 디자인



dish

V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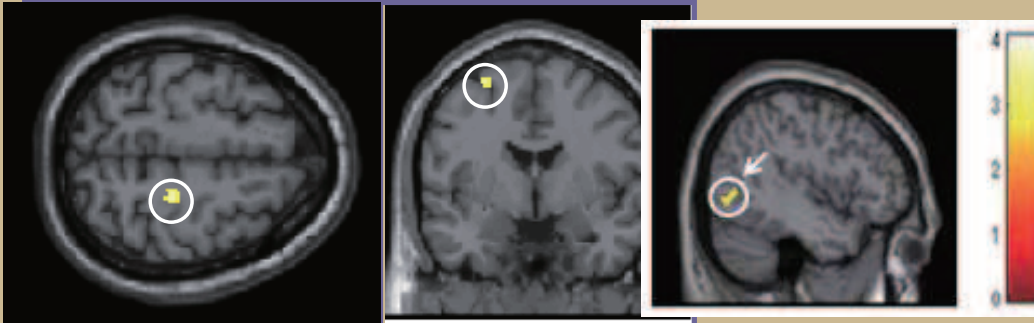
dish

VKc

SUNG ET AL. (2011) *Jap. Psychol. Res.*

만지고 싶은 디자인

VK - VKC



S1

SMA

SPM Z-MAPS, P = .000

SUNG ET AL. (2011) *Jap. Psychol. Res.*

관객의 체화



CARAVAGGIO (1601-1602)
"INCREDULITY OF ST. THOMAS"

뇌와 예술

1. 예술가의 뇌

뇌손상 예술가의 사례 연구 - 오랜 역사

2. 예술가의 뇌로 바라본 세상

MARGARET LIVINGSTON, PATRICK CAVANAUGH

3. 관객이 예술작품을 만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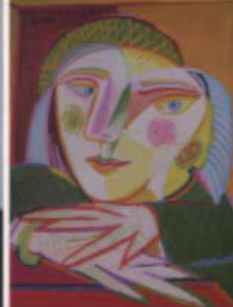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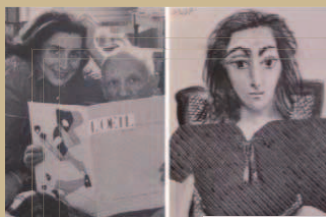
SEMIR ZEKI

4. 관객이 아름다움을 판단할 때

2000'S "NEUROAESTHETICS" RESEARCH

5. 관객의 체화

RIZZOLATTI, VITTORIO GALLESSE



예술경영아카데미 LINK <예술+ α : 감각의 재발견> 2회차
냄새를 '보고' 색을 '듣는' 공감각,
뇌의 오류일까 축복일까?

최 강 | 서울명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공감각 뇌의 오류일까? 축복일까?

서울명병원 최강

공감각

▶ 정의

- ▶ 어떤 자극에 의해 일어나는 한 형태의 감각이 다른 형태의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것
- ▶ 공(共) + 감각(感覺)
- ▶ Syn(together) + esthesia(sensation)

▶ 빈도

- ▶ 1/2000~1/6?
- ▶ 4%
- ▶ 색-자소 공감각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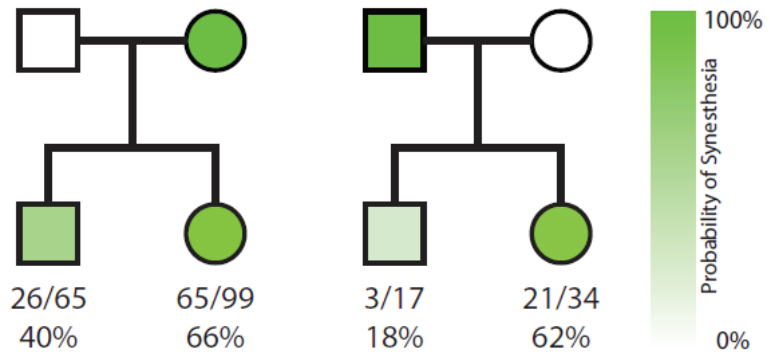
공감각

▶ 유전

- ▶ 공감각자의 40%에서 부모나 형제도 공감각자¹
- ▶ 여러 유전자(2, 5, 6, 12)의 특정 영역이 연관²

▶ 남녀차이

- ▶ 여>남(6:1)?
- ▶ 여=남²



1. Barnett et al., Cognition 2008
2. Asher et al., AJHG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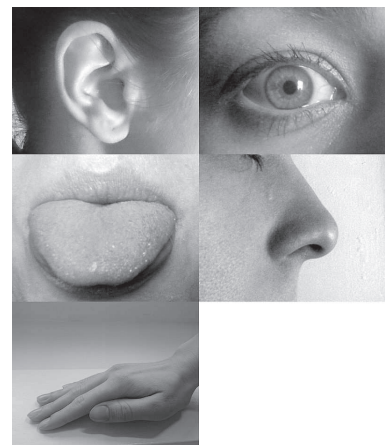
다양한 공감각의 세계

▶ 인간의 감각

- ▶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 공감각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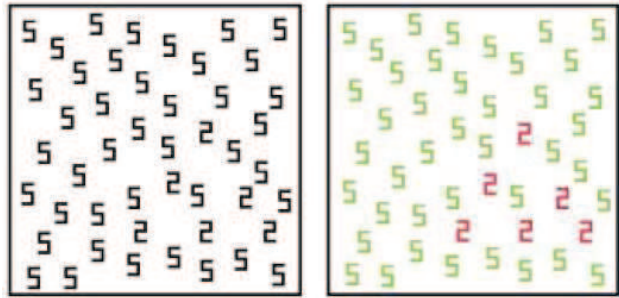
- ▶ 5 X 4=20?
- ▶ > 60
 - ▶ 한 자극이 두 개 이상의 경험을 일으킴
 - 소리가 촉각과 미각을 유발
 - ▶ 한 자극 내에서도 세부 특징 사이에서 발생
 - 글자를 볼 때 색깔을 경험
 - ▶ 감각의 확장
 - 성격, 감정



진단 기준과 분류

▶ 진단(?) 기준¹

- ▶ 비자발성
- ▶ 자동성
- ▶ 지속성



▶ 분류²

- ▶ 투사공감각자
- ▶ 연합공감각자

PROJECTORS

AB

ASSOCIA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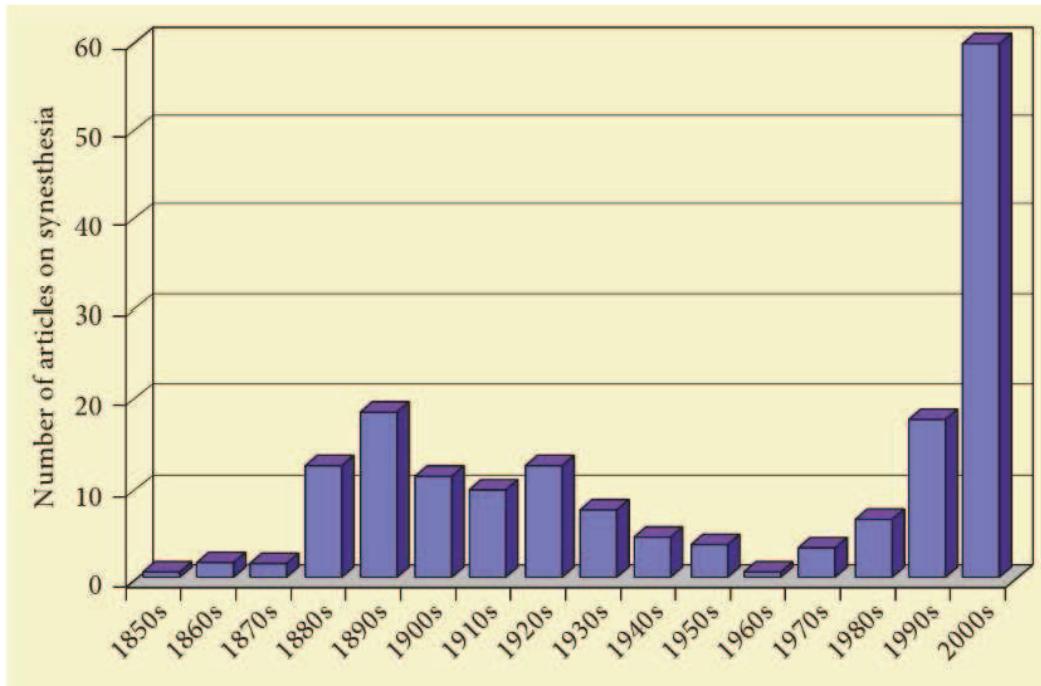
1. Ward. Ann Rev Psychol 2013
2. van Leeuwen et al., J Neurosci 2011

흥미로운 공감각의 세계

- ▶ 소리에서 색 느끼기
- ▶ 소리의 차이에서 맛 느끼기
- ▶ 움직이는 점에서 소리 느끼기
- ▶ 타인의 통증 따라 느끼기
- ▶ 수영 형태에 따라 색 느끼기



공감각 연구 경향



Simner & Hubbard. Oxford Handbook of Synesthesia 2013

색-자소 공감각에 대한 가설

▶ 교차 활성화(cross activation)

- ▶ 구조적 이상



▶ 탈억제된 되먹임(disinhibited feedback)

- ▶ 기능적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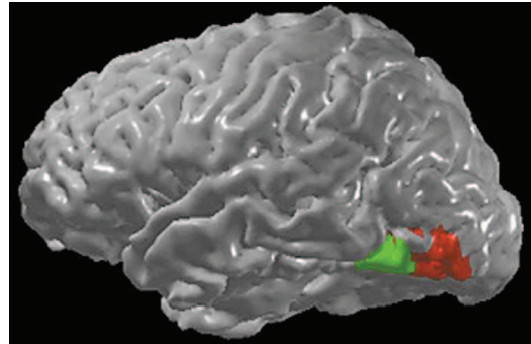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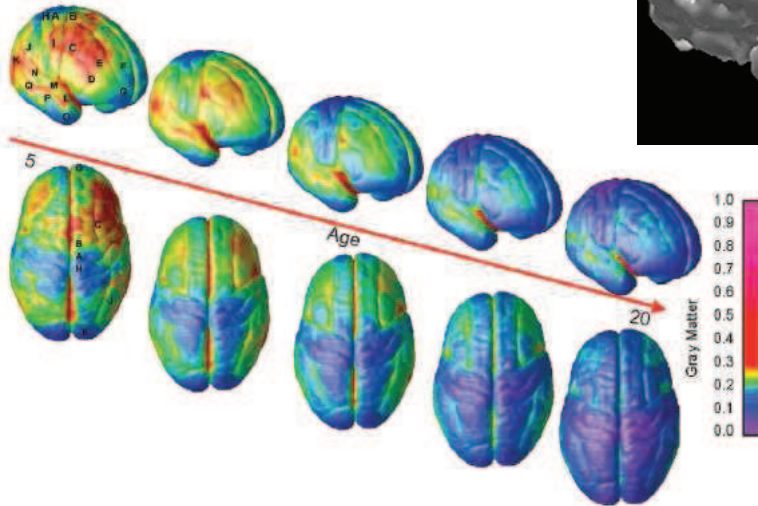


Hupe & Dojat. Front Hum Neurosci 2015

교차 활성화-1

▶ 근거

- ▶ 인접한 두 영역¹
- ▶ 신경망 가지치기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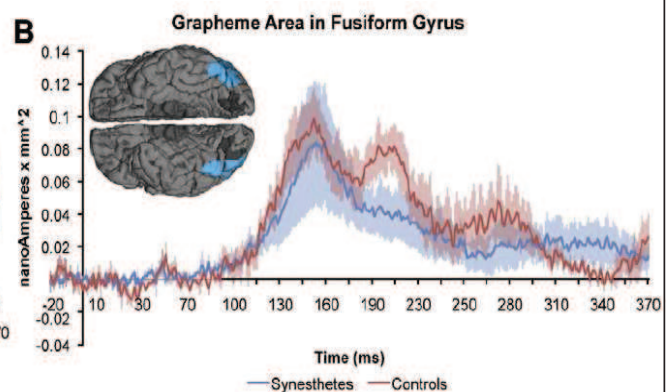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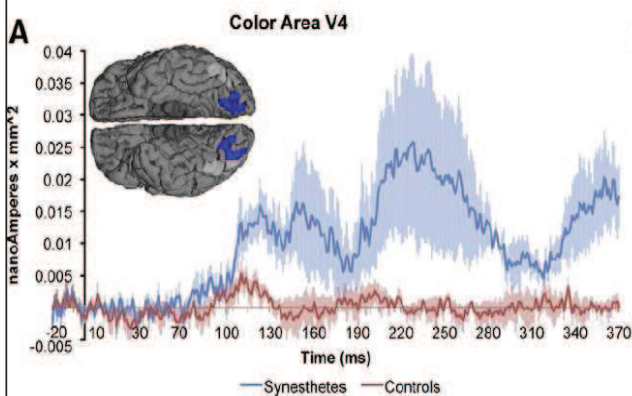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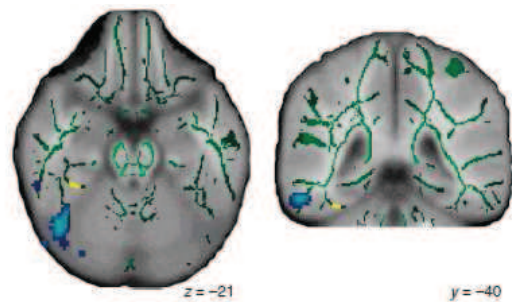


1. Ramachandran & Hubbard. . Proc R Soc Lond 2001
2. Gogtay et al. PNAS 2004.

교차 활성화-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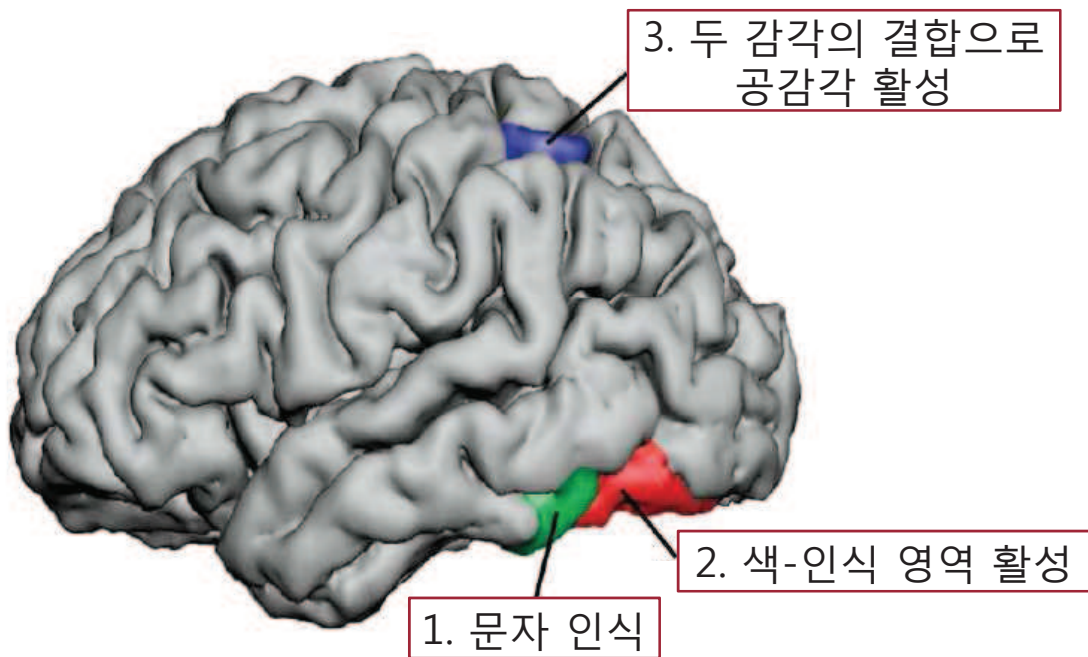
▶ 근거

- ▶ 신경 통로의 연결성 증가¹
- ▶ 동시에 일어나는 활성화²



1. Roux & Scholte. Nat Neurosci 2007
2. Brang et al., Neuroimage 2010.

색-자소 공감각자의 뇌



Hubbard. Nat Neurosci 2007

공감각자의 장단점

장점	단점 ¹
예술(21.4%)	방향 감각(14.6%)
기억력(17.2%)	운동 조종능력/ 균형감각/ 운동(13.0%)
글쓰기(16.2%)	
언어(10.9%)	
의사 소통(9.9%)	
수학(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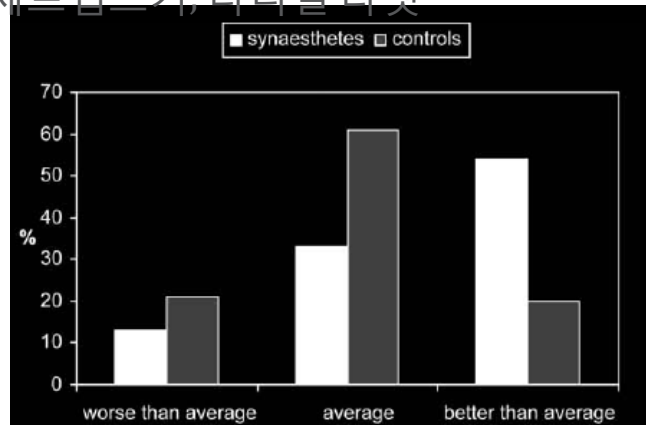
- ▶ 자폐 스펙트럼 장애²
 - ▶ 18.9% vs 7.22%

1. Rich et al., Cognition 2005

2. Baron-Cohen et al., Mol Autism 2013

공감각자의 장점 - 기억력(?)

- ▶ 연상 학습¹
 - ▶ 1544-7788 외우기
- ▶ 뛰어난 공감각자들
 - ▶ 솔로몬 베니아미노비치 세르셴스키, 다니엘 타멧
- ▶ 성급한 일반화²
 - ▶ 근거 없는 자신감



1. Yaro & Ward. Q J Exp Psychol 2007

2. Rothen et al. Neurosci Biobehav Rev 2012

공감각자의 장점 - 창의성!

- ▶ 수많은 공감각 예술가들
- ▶ 연구1
 - ▶ 공감각자 192명 vs 일반인 50명의 예술 종사 여부
 - ▶ 24% vs 2%
- ▶ 연구2
 - ▶ 예술 전공 학생 99명 vs 일반인 96명의 공감각 여부
 - ▶ 7% vs 2%

1. Rich et al. Cognition 2005

2. Rothen & Meir. Perception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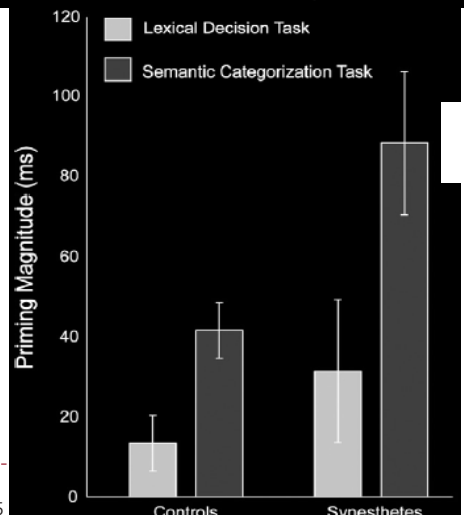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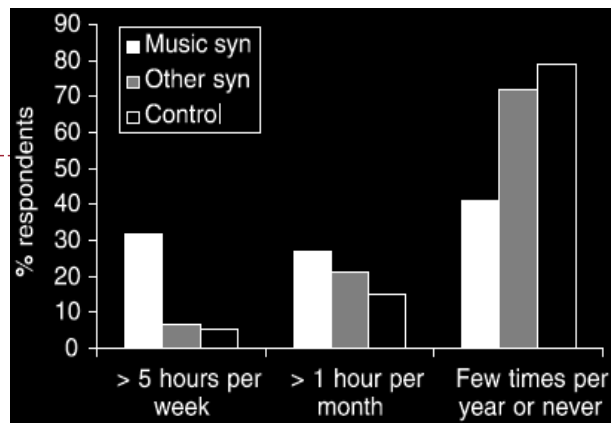
공감각 예술가의 실제

- ▶ 문학
 - ▶ 아르튀르 랭보, 블라디미르 나브코프
- ▶ 미술
 - ▶ 바실리 칸딘스키, 데이빗 호크니, 멜리사 맥크라켄
- ▶ 음악
 - ▶ 올리비에 메시앙, 알렉산더 스크리아빈
- ▶ 사진
 - ▶ 마샤 스밀랙
- ▶ 요리(?)



정말 창의적인가?

- ▶ 연구 1
 - ▶ 원격 연상 검사(RAT)
 - ▶ 수렴적 사고
 - ▶ 대안적 용도 검사(AUT)
 - ▶ 확산적 사고
- ▶ 연구2
 - ▶ 의미 점화(semantic priming)
 - ▶ 어휘 판단 과제(LDT)
 - ▶ 의미 범주화 과제(S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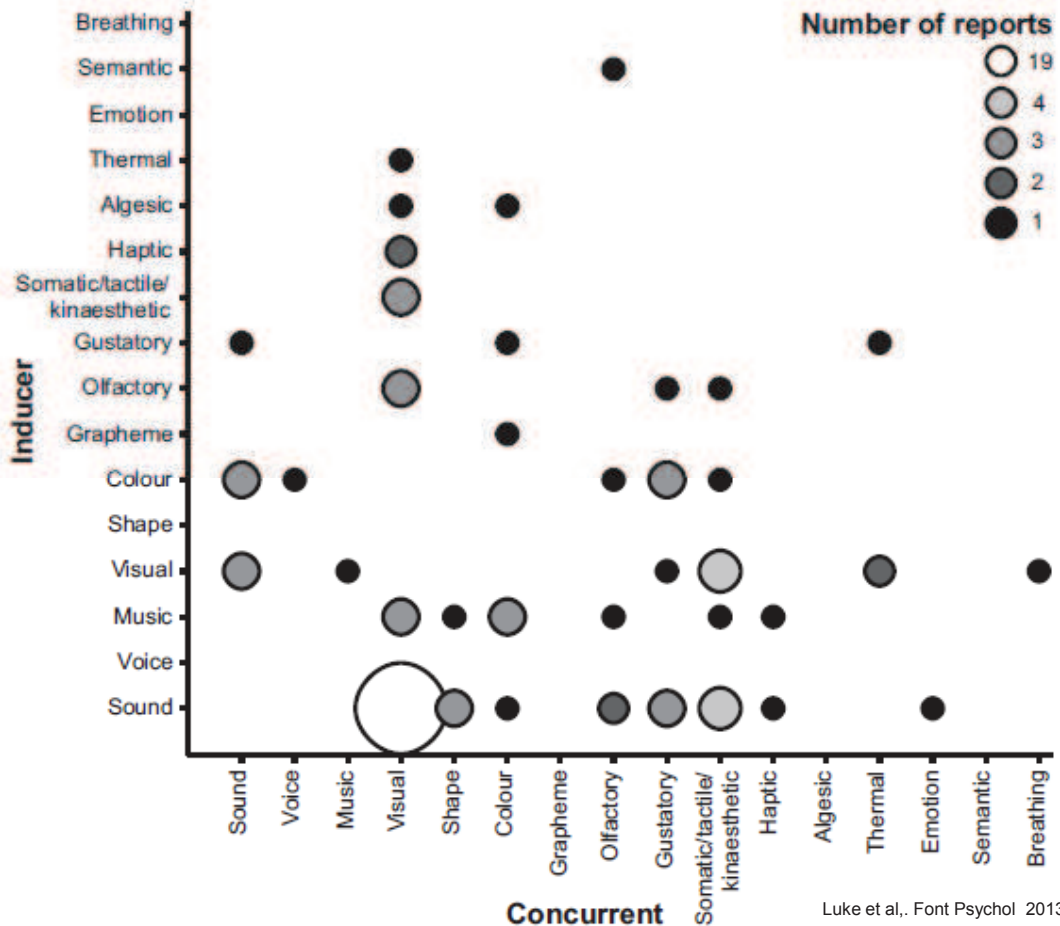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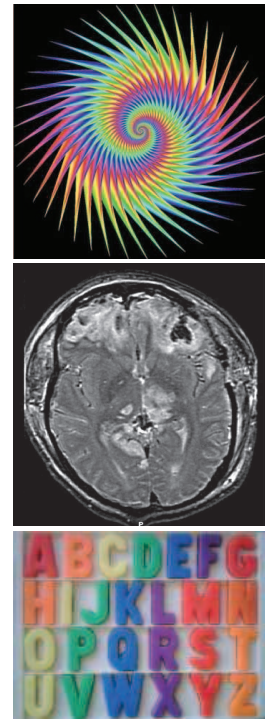
1. Ward et al., Brit J of Psychol 2006
 2. Goodhew et al., Conscious Cogn 2015

공감각, 후천적으로 가능한가?

- ▶ 약물
 - ▶ LSD, 메스칼린, 마술 버섯

- ▶ 머리 손상
 - ▶ 외상, 뇌졸중, 뇌출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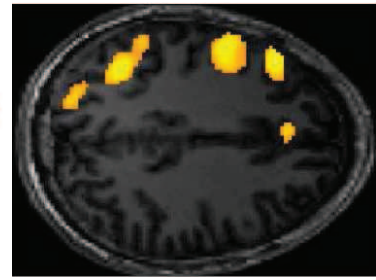
- ▶ 학습
 - ▶ 자석 글자



제이슨 패짓(Jason Padgett)



1. $hf = mc^2$
2. $f(x) = x \sin\left(\frac{\pi}{x}\right)$
3. $f(6) = 6 \sin\left(\frac{\pi}{6}\right)$
4. $6, 6^2, 6^3$
5. $a^2 + b^2 \Leftrightarrow c^2$
6. $2 \left(\sin\left(\frac{\pi}{180}\right)\right) r$
7. 2^9
8. x^2
9. $8 \sin\left(\frac{\pi}{8}\right) \times r^2 \times h$
10. $\frac{\Delta x}{\Delta t}$, as Δt approaches t_p
11. $2 \times \int_{-1}^1 \sqrt{1-x^2} - x^2$
12. \sqrt{x}
13. $f[x]$
14. $f(x) = x$
15. $\frac{\pi}{x} \pi/6) \frac{\pi}{7} \frac{\pi}{8} \frac{\pi}{180} \frac{\pi}{8} \frac{\pi}{6} \frac{\Delta x}{\Delta t} \frac{\Delta v}{\Delta t} \int_{-1}^1 1 - x^2 \sqrt{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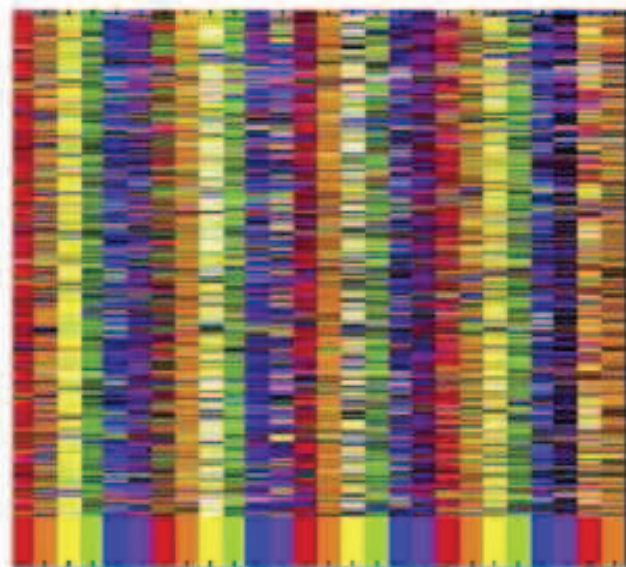


Brogaard et al., Neurocase 2012

공감각의 원천, 피셔-프라이스?



400 Synesthetes 10+ match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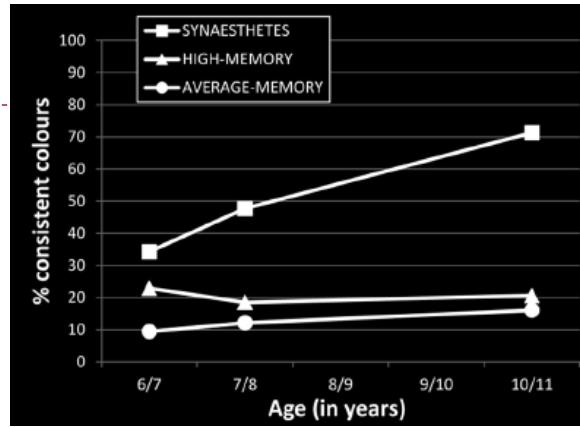
ABCDEFGHIJKLMNOPQRSTUVWXYZ

Withoft et al., PLOS ONE 2015

공감각의 발달 양상

▶ 특징

- ▶ 늦게 발현될 수 있음
- ▶ 사라질 수도 있음
- ▶ 양상이 변하기도 하나 나이 들면서 점차 고정됨



JC	0	1	2	3	4	5	6	7	8	9
Session 1 (Selection 1a)	Yellow	Dark Blue	Orange	Brown	Green	Dark Blue	Red	Green	Light Green	Red
Session 2 (Selection 2a)	Yellow	Light Blue	Orange	Purple	Light Green	Dark Blue	Red	Dark Green	Dark Green	Red
Session 3 (Selection 3a)			Orange	Red	Light Green	Dark Blue	Red	Dark Green	Orange	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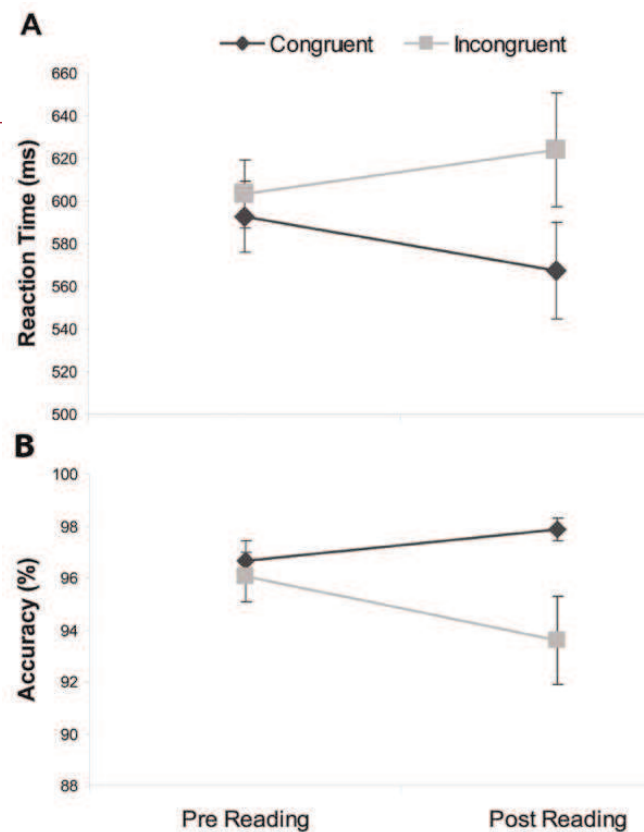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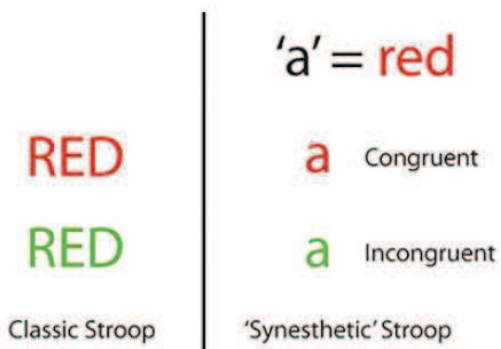
SB	0	1	2	3	4	5	6	7	8	9
Session 1 (Selection 1a)	Grey	Purple	Light Green	Light Blue	Yellow	Light Green	Brown	Light Green	White	Dark Blue
Session 2 (Selection 1b)	Yellow	White	Purple	Purple	Red	Red	Brown	Light Blue	Orange	Light Blue

Simner & Bain. Front Hum Neurosci 2013

공감각의 학습-1

▶ 발견

- ▶ '글자에 색깔이 칠해진 책'을 통한 공감각의 습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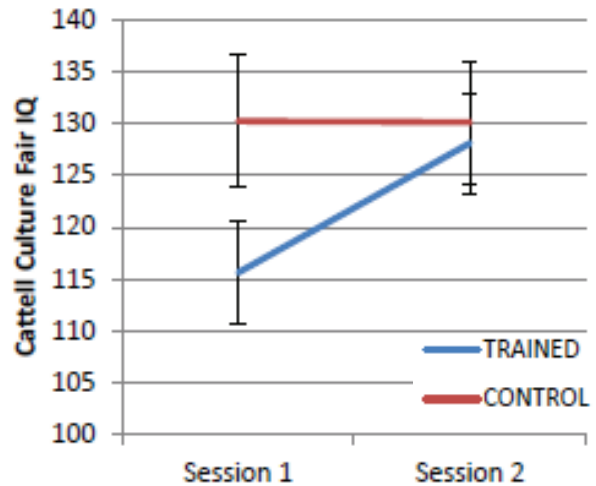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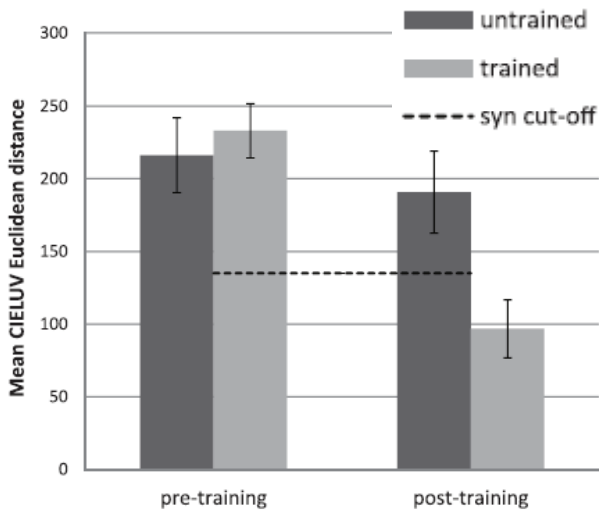
Colizoli et al., PLOS ONE 2012

공감각의 학습-2

▶ 방법 및 결과

- ▶ 매일 30분씩, 9주 동안 13개의 문자를 연습
- ▶ 공감각의 습득 & 지능(IQ)의 상승

A Mann ■ ■ ■ ■ ■ ■ ■ s.



Bor et al., Sci Rep 2014

집에 가지고 가면 좋을 내용들

- ▶ 공감각은 종류는 생각보다 많다
- ▶ 공감각은 뇌의 형태적 혹은 기능적 오류일 수 있다
- ▶ 공감각은 창의력의 소재가 될 수 있다
- ▶ 공감각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 ▶ 공감각은 제한적으로 학습될 수 있다

예술경영아카데미 LINK <예술+ α : 감각의 재발견> 3회차
미술은 여전히 '보는' 것일까?
오감으로 보는 현대미술

이지은 |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감각사로 정리해 본 현대미술의 다양한 얼굴

이지은 (명지대 미술사학과 교수)

오늘날의 미술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교과서에서 자주 보던 회화나 조각같이 우리 눈에 친숙한 작품들 보다는 과연 이게 미술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기이하고 엉뚱한 물건이나 행위가 버젓이 미술관과 화랑에 전시된다. 고막을 찢는 소음과 함께 전시장을 가로지르며 작가가 뛰어다니고 한 구석에서는 앞치마를 두른 사람이 국수를 볶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동시대 미술에 대한 우리의 몰이해는 전위적인 미술은 언제나 대중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라 넘겨짚는다. 하지만 미술가는 작품을 통해 소통한다. 아니, 소통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때 중재에 나서야 하는 것이 미술사가나 평론가의 역할이다.

미술이 '보는 것'이라는 당연한 명제가 과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 언제부터인가 현대미술의 공간은 소리와 감촉, 냄새와 맛으로 채워지고, 이는 미술은 보는 것이라는 우리의 편견을 반박한다. 본 강의는 미술이 시각 이외의 타 감각을 수용해 나가는 과정을 추적하며 다양한 감각을 통해 소통하는 현대미술의 양상을 다룬다. 우리의 오감에 따라 바라보기, 들어보기, 만져보기, 맡아보기와 맛보기로 나뉘어 각각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을 다루는 미술을 소개하며 이들이 어떻게 기존의 시각 중심적 미술에 도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음악과 소음이라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현대미술에 편입되어 왔는지, 관람자와 작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구현되는 촉각적 미술이란 어떤 것인지, 심지어 미술과는 무관해 보이는 냄새와 음식, 배설물이 어떻게 미술로서 향유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여기에 그 시대의 철학은 물론 미술사의 선례들과 동시대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이 맞물리고 있음은 말할 나위 없다. 결국 나와는 가장 상관없다고 여겼던 동시대 작품이야말로, 실제로는 나와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 가장 근접해있다.

원했던 바로 그 소통을 이루는 것이다. 작품과 관람자 사이에 인문학이 다리를 놓았을 때, 비로소 난해한 현대미술과의 만남이 흥미롭고 두근거리는 경험이 될 수 있다.

I. 미술은 아직도 시각예술인가?

우리는 이미지의 세계에 살고 있다. 비잔틴 시대 이후 우상파괴론을 둘러싸고 본격화 되었던 언어와 이미지간의 길고 긴 라이벌 관계는 이미 이미지의 승리로 끝난 듯이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의 운영체제이던 MS-DOS가 명령어를 중심으로 하는 언어의 위상을 보여주었다면, 이에 반대로 마우스를 이용하여 도상을 클릭하는 애플Apple 컴퓨터의 ‘포인트-앤-클릭point-and-click’방식은 이미지가 가진 힘을 과시하는 것이었다.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우즈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명령어를 버리고 도상을 클릭하는 방식을 선택하였고, 항간에는 이것이 이미지의 승리를 대변하는 사건으로 회자되기도 했다.

이미지의 생산과 소비의 방식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사진의 발명 이후, 다양한 형태로 편재하는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은 전 국민을 파파라치로 만들었고, 이는 과거 소수 전문가들이 독점하던 이미지의 생산이 더 이상 특수한 분야가 아님을 증명한다. 이미지의 양적 팽창과 그 수용방식은 또 어떤가. 미술작품은 더 이상 미술관의 전유물이 아니다. 디지털복제기술의 발달과 함께,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치환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만날 수 있다. 모나리자 깔개, 모나리자 머그잔, 심지어 샤워커튼까지. 미술관의 아트숍이나 인터넷의 홈쇼핑에서 만나는 모나리자는 범접할 수 없는 예술작품의 아우라aura 대신 친근한 대중성을 지녔다.

이미지의 대량복제는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이 기대했던 아우라의 붕괴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편재하는 이미지는 그 수용에 있어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폭과 파장을 지녔다. 오늘날 우리가 소비하는 이미지들은 기존 미술의 영역에 속하지 않은 다양한 매체와 시각경험들을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런 이미지의 홍수는 언뜻 생각하기에도 미술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다.

사진의 발명 이전, 미술은 가시세계의 재현을 독점하고 있었다. 벽화나 천정화로, 혹은 액자에 넣어진 캔버스나 두루마리 그림의 형태로 회화가 우리에게 제공했던 것은 평평한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는 시각적 환영이었다. 우리가 ‘그림’하면 흔히 떠올리는 사각형의 틀은 이런 재현의 바탕이 되는 일종의 “개념적 도식conceptual schema”인 셈이다. 그 틀 안의 공간은 우리가 존재하는 물리적 공간과는 완전히 별개로 취급된다. 즉 사각형의 틀이야말로 그림 앞에 선 우리의 현실과, 그림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차원의 현실을 마치 평행우주처럼 나란히 정당화하는 이론적 허구를 제공해 온 것이다. 이러한 사각형의 마술은 회화가 이미 제 모습을 찾기 힘들 정도로 확장된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유효하다. 스크린은 여전히 네모이지 않은가. 우리는 프로젝터에 의해 벽에 비춰지거나 모니터 스크린을 통해 보는 영상 속에서 기존 회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환영적인 공간을 본다.

회화가 그 매체의 조건인 평면이 갖는 물리적 공간과 시각적 환영 양자를 담보한다면, 영상이미지의 존재 조건은 보다 일방적이다. 일반적인 영상작품의 경우, 필름이나 비디오테이프, DVD같은 물리적 매체가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감상하게 되는 이미지는 손에 잡히지 않는 비물질적 영역인 '영상vision'에 속해있다. 평면은 회화, 입체는 조각, 이런 식의 물리적 조건을 기반으로 하던 미술장르가 와해된 것이다. 또한 디지털 시대의 재현은 감각적으로 인지되는 형태인 동시에 복제가능한 정보로 치환된다. 우리는 모나리자를 루브르 미술관이 아니라 강의실의 프로젝션이나 인터넷 이미지로 더 자주 접한다. 디지털로 전사된 이미지는 생활 속에도 편재한다. 디지털 기술로 가능해진 이미지의 등가복제는 원본과 복사본의 질적 차이를 무너뜨림으로서 기존의 오브제 중심의 작품 개념을 뒤흔들어 놓았다. 매체가 상징하는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받던 이미지는 이제 오브제를 떠나 시각성이라는 비물질의 감각영역 안에 존재한다. 매체를 넘어선 이미지는 더 이상 미술의 장르라던가, 물리적인 조건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미술이 독점하던 이미지를 다루는 시각영역의 확장은 우리시대에 시각문화연구라는 새로운 학문분야의 등장과 함께 시각성의 정의 그 자체를 문제 삼게 되었다.

II. 감각으로 풀어보는 현대미술

1. 바라보기 -시선

시각을 정신의 영역이 아닌 몸의 영역에서 정의하고 탐구하려는 시도는 과학시대의 도래와 함께 본격화되었다. 19세기 초에 나타난 생리학적 기반의 시각에 대한 논의 역시 데카르트적 원근법주의의 탈 육체화된 시각성에 대한 반론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시각에 대한 논의에서 신체가 새로운 중심으로 등장한 계기는 1810년 출간된 괴

테Goethe의 『색채론 *Farbenlehre*』이었다. 괴테는 저서에서 강한 빛을 보고 난 후 남는 망막의 잔상殘像과 그 색채변화에 주목하였다. 이는 시각현상을 더 이상 정신의 영역이 아닌 신체의 영역으로 이끄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었다. 괴테 이외에도 데이비드 브루스터David Brewster, 조셉 플라토Joseph Plateau, 구스타프 페히너Gustav Fechner, 요하네스 뮐러Johannes Müller 등으로 이어지는 19세기 초반의 생리학적 관심은 몸에 속하고, 정신의 지배받지 않는 자율적인 지각을 제시하였다.

순수한 시각에 대한 미술의 탐구는 20세기에도 계속되었다. 이는 20세기 초반, 추상 미술을 둘러싼 듯한 이론과 사조들이 말하는 색에 대한 논의에서 엿볼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예는 로베르 들로네Robert Delaunay가 창안한 오르피즘Orphism이다. 1912년 발표된 “순수 회화에서의 리얼리티 구축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들로네는 ‘회화적 리얼리티’의 근본을 색채로 보았다. 그에게 색채란 회화에 “깊이감과 형태, 그리고 운동감을 부여”해주는 절대적 요소였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술에서 이러한 시각적 순수성을 추구한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한 추상표현주의Abstract Expressionism의 모더니스트 회화Modernist Painting이론을 들 수 있다. 모더니스트 회화라는 명칭은 당대 비평가 클레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에 의해 사용되었다. 어떻게 그림을 바라보느냐에 대한 그린버그의 주장은 ‘순수한 시각’이란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 관람자는 그의 기억이나 경험, 역사적 배경을 이끌어내는 어떠한 단서도 제공되지 않는 순수한 추상 앞에서, 단지 시각이 받아들이는 조형적 요소로서만 그림을 감상한다.

2. 들어보기 -소리

명징한 시각이 지배하는 감각의 세계에서 소리는 냄새와 감촉만큼이나 불분명한 인식 수단이었다. 음악은 세계에 대한 구체적 묘사를 피하는 추상으로 치부되고, 삶의 경험이 묻어나는 목소리는 글쓰기의 전제조건으로 폄하되었다. 보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쉽 없이 듣고 있는 우리들의 귀는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라는 말 한마디에 대수롭지 않게 무시되었다. 이런 소리가 철저한 시각 우위의 세계인 미술에 스며들기 시작한 것은 바로 20세기이다. 대상의 묘사에 구속되어 온 미술이 이를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길은 바로 미술이 그토록 배제해 온 음악을 닮는 것이었다.

3. 만져보기 -감촉

근대 이후, 시각의 우위가 정점을 이루고 난 뒤 이에 대한 반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후설Husserl과 메를로-퐁티Merleau-Ponty로 이어지는 현상학의 연구이다. 앞서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각에 대한 논의를 정신과 인식의 영역에서 다시금 몸의 영역으로 되돌려놓은 것은 현상학의 성과였다. 그러나 자크 데리다Jaques Derrida와 임마누엘 레비나스Immanuel Levinas에게는 촉각의 우위가 시각의 우위를 대신하는 권위체계 자체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데리다는 촉각에 대해 나와 나를 둘러싼 환경(세계)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했다. 그가 '휴매뉴얼리즘humanualism'이라고 명명한 사유의 방식은 촉각의 주체toucher와 만지는 대상 touched간의 독특한 인터페이스에서 형성된다. 만지는 행위에서 '나'는 만지는 주체인 동시에 대상에 닿는 순간 대상으로부터 만짐을 당하는 또 다른 대상이 됨으로써 결국 주체와 대상이라는 이분법적 대립이 와해된다. 데리다에게 이런 헤게모니의 와해는 다른 감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촉각만의 특성이고, 위계적 구조 자체의 와해를 나타내는 증거로서 특정 감각을 다른 감각보다 우위에 두는 또 다른 '촉각중심주의'로의 이행을 막는 것이다.

4. 말아보기와 맛보기 -냄새와 맛

후각과 미각은 오감의 체계 중 가장 하위의 감각으로 치부되어 왔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각과 청각이 남성적이고 이성적인 반면 후각과 미각은 촉각과 한데 묶어 동물적이고 여성적인 감각으로 여겼다. 후각과 미각, 촉각은 육체의 쾌락과 고통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이성의 활동을 위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한편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감각으로 치부되는 후각이나 미각만큼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감각이 없다. 냄새의 문화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냄새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특정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는다. 향기는 우주관과 계급의 위계, 정치적 질서를 만들어내는 요소로 작용하며 사회구조를 강화하거나 이탈하고 사람들을 결속시키거나 해체하며 권력을 주거나 빼앗기도 한다.

예술경영아카데미 LINK
예술+α : 감각의 재발견

원고작성 김채연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강의순) 최 강 (서울명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이지은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기획 · 구성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산업기반실 교육컨설팅팀

발행일 2015년 12월

발행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57(연건동) 홍익대학교 대학로캠퍼스 교육동 3층
 전화 02-708-2217 팩스 02-2098-2903
 www.gokams.or.kr

※ 자료집의 판매, 전재, 복사를 금합니다.

100

예술경영지원센터 10주년